

나전

나전은 진주모패 조각을 옷칠 바탕에 채워 넣는 장식기법입니다. 이 기법이 8세기경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지자 일본의 장인들은 이 기술을 소품부터 무구,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였습니다.

나전은 진주를 생성하는 조개껍데기 안쪽에 형성된 무지갯빛 층인 '진주층'을 이용해 만듭니다. 나전에는 전복이나 진주조개 등 나전에 적합한 진주층을 형성하는 조개가 사용되는데, 그 색과 품질은 다양합니다. 진주층은 조개껍데기 양면을 얇은 시트 형태가 될 때까지 연마하여 추출합니다. 두께가 0.1~2mm인 것을 '후패', 그보다 얇은 것을 '박패'라고 하며, 두께에 따라 달리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진주조개의 작은 조각을 분쇄해서 무지갯빛 가루로 만든 '미진패'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인은 자신이 구상한 디자인에 따라 실톱, 정밀 나이프, 펀치 템플릿, 산에칭 등의 도구를 사용해 진주층에서 필요한 형태를 잘라내어 칠기에 붙입니다. 두꺼운 조개는 상감 기법으로, 얇은 조개는 옷칠 발라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옷칠을 하고 표면을 연마하면 완성입니다.

나전은 1999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